

경남 고성군, 커피 재배로 새로운 농업소득에 도전

경남 고성군이 농업기술센터에서 고성 생산 커피 시음회를 가지며 커피 재배로 새로운 농업소득 창출에 나섰다.

또한 고성군에서 생산한 기능성 쌀인 '가바쌀'을 지난 2월 1일 미국 수출선에 올해 첫 선적했다.

취재 백준상 기자 | 사진제공 고성군



고성 가바쌀 수출 선적



커피고성 시음회

경남 고성군(군수 최평호)은 지난 10일 농업기술센터에서 '커피고성' 시음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고성군은 고성에서 생산한 커피의 가공방법을 개발하고 지역 축산농가에서 생산한 우유와 결합해 메뉴의 다양화를 추진하는 등 고성 농업의 새로운 소득 분야를 개척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고성군은 농업기술센터 유리온실에 식재한 40주의 커피나무에서 지난 1월 11일 수확한 8.2kg의 커피열매를 가공해 이날 시음회를 가졌다. 이날 시제품은 핸드드립 아메리카노, 카페라떼 형태로 제공됐으며, 아메리카노와 정동목장 우유를 첨가한 카페라떼는 커피고성만의 향과 맛을 잘 살려 참가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았다.

시음회에 자신이 생산한 우유로 참가한 정동목장 김정섭 대표는 "고성

에서 재배한 커피로 이렇게 시음회를 가지게 돼 신선한 충격이고 농가에서 직접 생산한 우유로 커피라떼를 시음하니 더욱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김진현 농식품개발과장은 "커피는 원유 다음으로 세계적으로 많은 물동량과 국내 소비시장만 6조원으로 추정될 만큼 수요가 큰 기호 식품이다"며 "고성 지역의 지리적 장점을 최대한 활용, 새로운 농업 소득원으로 커피를 식품화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농식품개발과는 전국 최고의 농식품개발 1번지 도약과 미래먹거리 시장 선점을 목표로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 농업과 체험이 융복합돼 동반

성장 할 수 있는 6차산업화를 추진해 오고 있다.

한편 고성군에서 생산한 기능성 쌀인 '가바쌀'이 지난 2월 1일, 미국 수출선에 올랐다. 고성군은 고성읍에 위치한 (주)두보(대표 허원태)가 고성지역

농민들과 계약재배해 생산한 가바쌀 20톤, 6천800만원 상당을 미국 수출을 위해 선적했다고 밝혔다.

가바쌀에는 가바(GABA) 성분이 일반 현미의 8배가 함유돼 있으며 뇌 대사 촉진, 집중력 강화, 기억력 증진, 비만 예방, 성인병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주)두보는 지난해 미국으로 고성 가바쌀을 93톤 수출했으며 올해에는 300톤 수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고성군은 관내 농산물 생산 농가들의 판로 개척을 위해 수출 대상 국가를 일본·동남아시아에서 미국·중국·유럽(네덜란드)까지 확대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평호 고성군수는 "FTA 등 농산물 시장 개방에 대한 대응 및 내수 시장 안정을 위해 고성 농산물의 품질 향상 및 수출 시장 확대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